

조선 英祖代 戊申亂의 실패 원인

고수연*

- | | |
|----------------------------|------------------------|
| I. 머리말 | IV. 호남 반란군과 邊山賊의 연대 |
| II. 서울 少論 峻少세력의 반란준비와 세력약화 | 실패 |
| III. 退溪學派의 영남 반란군 이탈 | V. 호서 반란군의 안성·죽산 전투 패배 |
| | VI. 맺음말 |

I. 머리말

1724년 英祖가 즉위 하자 그의 후원세력이었던 老論세력은 辛丑·壬寅士禍(1721~1722)를 일으켰던 少論系 인물들을 처형하고, 乙巳處分으로 노론계 인물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少論 峻少들은 庚申換局(1680)·甲戌換局(1694) 이후 정치적으로 몰락한 지방의 일부 南人 양반들과 합세하여 叛亂軍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725년부터 서울·경기·호서·호남·영남지역으로 나누어 반란군 세력을 준비하고, 1728년 3월 擧兵하여 戊申亂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해 4월에 무신란은 진압되었다.

무신란에 대하여 처음 검토한 논문은 이상옥의 『영조 무신란의 연

* 영동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조교수

대표논저 : 2013, 『『戊申倡義錄』을 통해 본 18, 19세기 嶺南 南人の 정치동향』 『역사와 담론』 65 ; 2015, 『16~17세기 李潛·李得胤 父子의 講學活動과 門人の 動向』 『역사와 담론』 73 등

구」(1969, 『우석사학』 2)와 오갑균의 「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1977, 『역사교육』 21)이다. 이 연구들은 당쟁사의 관점에서 무신란의 경과·의미 등을 살폈다. 이후 연구들은 주로 무신란과 반란군의 성격에 주목하였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이종범의 「1728년 무신란의 성격」(1984, 연세대사학과석사학위논문)이다. 이 글에서는 무신란의 성격을 민중운동의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별로 무신란의 성격을 살핀 연구들도 있다. 이원균의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영남의 정희량 난을 중심으로-」(1971, 『부대사학』 2), 이재철의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1986, 『대구사학』 31), 고수연의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2008, 충북대사학과박사학위논문)과 「1728년 호남 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2011, 『역사와 담론』 60) 등이 그것이다. 이 글들은 당쟁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정치 상황에 따른 지방 사족사회의 변동으로 재지사족들이 무신란에 가담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무신란 당시 의병활동을 다룬 이옥의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2011, 『한국사학보』 42), 유한선의 「영조 4년 무신란과 전라도 의병 : 『湖南節義錄』 분석을 중심으로」(2011, 『전북사학』 39)도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로 무신란은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무신란 연구의 기본이 되는 반란의 세밀한 전개 과정이나 가담 인물의 활동상 보다는 무신란의 성격이 민중운동이었느냐, 당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정변이었느냐를 밝히는데 집중한 경향이 있다.

둘째, 무신란 초기의 연구 외에는 호서·호남·영남 등 지역별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의 특성이 합쳐진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셋째, 조정에서는 무신란이 일어나자 성공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대처와 관군의 진압부분 보다는 오히려 반란군 진압에 보조역할을 한 '의병'세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넷째, 무신란은 『영조실록』에 기록된 반란인물만도 642명이며, 무신란 가담인물의 친국기록인 『무신역옥추안』에 기록된 인물도 240명이나 되는 큰 사건이었다. 또한 조선후기 중앙 정계는 물론 지방 향촌사회에도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무신란의 실패 원인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략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 중에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미진하게 연구되었던 무신란의 실패 원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무신란의 실패 원인에 대하여 장절을 두어 따로 정리한 글은 없다. 다만, 이우성의 「地方土豪 對 中央權力層의 鬭爭」(1959, 『경상남도지』)에서 처음 실패원인을 언급하였다. 이우성은 영남지역의 무신란에 국한하여 그 실패원인을 '민중의 지지를 받을 행동강령이 없었으며, 토착양반들의 전면적 궤기를 얻지 못했고, 소론 일파가 난을 고변하여 자기 일파를 共倒同亡에서 구출하려 했으며, 난의 주도 인물이 유생출신으로 전투적 기질을 가지지 못한데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원균의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영남의 정희량 난을 중심으로-」(1971, 위의 논문)에서도 결론에서 영남 무신란의 실패 요인을 이우성과 비슷하게 언급하였다.

또 오갑균은 「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1977, 위의 논문)의 결론에서 무신란이 실패한 이유는 '당인들의 모의가 산발적이었으며, 민중의 호응을 전폭적으로 받지 못했고, 당인의 적극참여가 없었으며, 일반민중이 난의 토벌에 협조한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인들의 모의가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왜 당인이 적극적으로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그 당인의 당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내지 못했다. 또한 당시 변산적이 반란에 가담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들이 민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 이유, 나아가 일반민중이 난의 토벌에 협조했던 의병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

하여는 언급하지 못했다. 즉, 구체적 근거에 의해 명확하게 실패원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실패 이유를 결론에 언급만 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실패원인을 언급한 연구들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의 초기 무신란 연구들이다. 초기 무신란 연구들은 자료 활용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영조실록』을 활용하여 반란의 전개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실록은 철저히 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은 정제가공한다. 따라서 반란 사건에 대한 사료로서의 순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실록 보다는 반란군의 공초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무신역옥추안』이 반란의 전개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증거 해 줄 수 있다.¹⁾

따라서 이 논문은 『무신역옥추안』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호서·호남·영남에서 동시다발적이자 유기적으로 일어난 무신란의 실패원인을 종합하여, 검토·정리해 보려고 한다.

II. 서울 少論 峻少세력의 반란준비와 세력약화

1. 반란준비

무신란의 초기 준비 활동은 朴弼顯(1680~1728)의 주도와 李有翼(?~1728)·沈維賢(?~1728)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少論 峻少로 1725년부터 재산을 처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란에 함께 가

1) 『戊申逆獄推案』은 총 10책으로 『推案及鞫案』 14·15·16권(1983, 아세아문화사 영인·간행)에 실려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英祖戊申逆獄推案』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영인·간행한 판본도 있다. 번역본으로는 2014년에 『추안급국안』 90책(오향녕 외, 흐름출판사)이 있다. 물론 『무신역옥추안』은 철저히 한 개인의 주관적인 진술이므로 변형이나 확대, 혹은 축소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여러 인물들의 진술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능한 같은 내용의 진술일 경우 여러 사람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담할 '知名之士'를 모집하기 시작했다.²⁾

그러나 1725년 8월 영조 즉위 후 심유현이 이유익과 흥언을 만들어 냈다 하여 담양부사로 좌천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반란군 모집은 주로 박필현과 이유익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박필현은 상주땅에 가서 한세홍의 집에 머물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 괴산에 이르러 이인좌 4형제와 결탁하는 등 지방을 돌며 반란 세력 포섭에 힘을 기울였다.³⁾ 다음은 박필현이 중심이 되어 1725년부터 1727년까지 모집한 무신란 초기 주도세력이다.

〈표 1〉 무신란 초기 주도세력⁴⁾

거주지	이름	거주지	이름
서울	朴弼顯(峻少) 李有翼(峻少) 沈維賢(峻少) 韓世弘(峻少) 李思晟(峻少) 南泰徵(峻少) 朴弼夢(峻少) 尹德裕(峻少) 鄭思孝(峻少) 梁命夏(小北) 閔觀孝(南人) 李河 李樾 李相 李志仁 李明彥 尹寔	나주	羅晚致(南人) 羅斗冬(南人) 羅崇大(南人)
		충주	閔元普(南人) 閔百孝(南人)
		안음	鄭希亮(南冥學派 계열)
		용인	安焜
		진위	權瑞鳳(峻少)
여주	趙鎰 趙德奎 任瑞虎 辛胤祖	과천	愼光遠
청주	李麟佐(南人) 李能佐(南人) 李麒佐(南人)	상주	金弘壽
양성	鄭世胤 權瑞麟 崔擎宇	합천	曹聖佐(南冥學派 계열)

박필현은 1725년부터 1727년까지 서울에 거주하던 朴弼夢·李河·李思晟·南泰徵·李樾·閔觀孝·梁命夏·南泰徵·尹德裕·昌山君 李相·李志仁·鄭思孝 등을 반란세력으로 끌어들인다. 특히 關西地域 병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平安兵使 이사성은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1727년 12월 10일~15일 안엽과 정세운이 직접 박필현의 편지를 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이사성의 반란가담을 확정짓는다.⁵⁾

2) 『英祖實錄』 권16, 4년 3월 25일 ; 『무신역옥추안』 권15, 5월 1일 임선 공초
 3) 『무신역옥추안』 권15, 5월 1일 임선 공초
 4)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5일 이사성 공초 ;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6일 이인좌 공초 ; 『무신역옥추안』 권3, 4월 10일 정의련 공초 참조

그리고 지방에서는 청주에 거주하던 李麟佐·李能佐·李麒佐 형제와 안음 거주 鄭希亮, 합천 거주 曹聖佐, 양성 거주 鄭世胤·權瑞麟·崔擎宇, 용인 거주 安焜, 나주 거주 羅晚致·羅崇大·羅斗冬, 여주 거주 趙鎰·趙德奎·任瑞虎·辛胤祖, 진위 거주 權瑞鳳, 과천 거주 愼光遠, 충주 거주 閔元普·閔百孝 父子, 상주 거주 金弘壽 등이 가담하였다.

즉, 서울에서는 소론 준소 계열이, 지방에서는 남인 계열이 주로 반란에 포섭된 것이다. 특히 지방의 인물들은 한 명이 반란에 가담하면, 적극적으로 같은 당파나 친인척들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예를 들면 1726년 박필현에 의해 반란에 가담하게 된 이인좌 형제는 1727년 혼맥이 닿아있는 정희량을 청주 송면으로 불러 반란군편에 가담시킨다.⁶⁾ 또한 정희량은 호남 반란군 주도세력인 나주나씨 가문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주나씨 가문은 다시 이인좌 가문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혼맥으로 연결된 이들은 갑술환국 이후 정치적으로 몰락한 상태에 있었다.

초기 주도세력이 모이자 반란군들은 곧바로 군사와 군자금을 모으기 시작한다. 다음은 반란군의 군사 및 군자금 마련 현황이다.

〈표 2〉 반란 군사 및 군자금 모집⁷⁾

거주	성명(군사 및 군자금 모집)
서울	李河(노복 50여 명, 중인·서인 50여 명), 閔觀孝(은 40냥, 돈 100냥) 昌山君 李相(家僮 수십명), 梁命夏(奴屬 수십명)
평안도	李思晟(은 300냥, 군복)
양지	尹就徵(군사 30명)
양성	鄭世胤(민관호·남태징 포섭), 崔擎宇(군사 200명, 군랑미 100석, 말 12마리), 權瑞麟(군사 90명, 쌀 100석), 李戶(군사 25명)

5)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5일 이사성 공초

6) 『무신역옥추안』 권3, 4월 10일 정의련 공초

7) 『영조실록』 권16, 4년 4년 3월 23일·3월 24일·5월 7일·5월 10일·5월 13일·5월 14일·5월 15일;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16일 김옥성 공초·3월 19일 신광원 공초·3월 19일 이하 공초; 『무신역옥추안』 권2, 3월 26일 이인좌 공초·3월 28일 목함경 공초; 『무신역옥추안』 권7, 5월 24일 원만주 공초·6월 21일 고응량 공초 참조

진위	元萬周(말 12마리), 金鼎鉉(군복), 李文著(米太)
이천	崔萬柱(재물)
여주	趙鎰(군사), 申錫永(旗), 辛胤祖(하인 70여 명), 任緒麟(박세징·이재신·박만 포섭)
청주	李麟佐(군사 200명, 정희량 포섭), 李之景(군사)
충주	閔元普(포수·화약·鳥銃·環刀·軍服), 閔百孝(포수 10여 명, 군복)
괴산	金德三(괴산 속오군, 旗), 李震華(驛馬)
부안	金守宗(奴 50인)
나주	羅晚績(錢布)
안음	鄭希亮(家僮·民丁 120명, 동전, 곡식, 말 수십필, 旗)

위의 표를 보면 반란군의 군사와 군자금 대부분은 반란군의 자산으로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초에는 군대모집의 경우 서울세력이 각각 100명 씩 각출하기로 하고 남태징은 포도청 군사를 모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 세력의 경우 '昌山君 李相의 家僮', '梁命夏 등의 奴屬', '李河의 礪山농장의 田民' 정도에서만 모두 합쳐서 100명의 모병이 가능했을 뿐이다.⁸⁾

오히려 서울 세력보다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경기도 양성·진위 지역과 호서지역, 영남지역의 募軍 활동이 돋보였다. 특히 호서지역의 이인좌·이능좌 형제는 남인으로 비교적 늦은 1726년에 이르러 반란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군대와 군자금을 모금하여 이인좌의 경우 200명의 군사를 모집했다.⁹⁾ 양성의 정세운과 최경우·권서린도 군대와 군자금 모금에 크게 활약했다. 정희량 역시 영주 부석사 근처에서 조부묘를 이장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120명의 반란군과 군기를 준비했다.¹⁰⁾

8)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5일 이유익 공초 ;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5일 이유익 결안

9) 이인좌(1695~1728)는 본관 전주로 갑술환국 때 노론에 의해 실각한 李雲徵의 손자이다. 이인좌의 백조부 李義徵도 갑술환국 때 사사되었다. 또한 이인좌는 경신환국 때에 賜死된 남인의 이론가 尹鏞의 손자사위였다.

10)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7일 정축

그리고 반란군들은 부족한 무기보충을 위하여 관청의 화약을 반출하기도 하였다. 즉, 1728년 1월 2일 밤에 좌천되었던 반란주모자 沈維賢이 본인이 부사로 있던 潭陽府의 화약고에서 화약 4,213근 등을 반출한 것이다. 그리고 반출한 화약은 서울의 포도대장 남태징과 이유익에게 보내고, 자취를 없애기 위하여 화약고에 불을 냈다.¹¹⁾ 이 화약은 서울의 성문을 폭발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한다.¹²⁾

반란군은 전투전략을 ‘外起內應’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삼남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로 올라가고, 평안병사 이사성은 관서지역에서 병사를 이끌고 내려오고, 중앙에서는 병권을 쥐고 있던 摠戎使 金重器와 禁軍別將 南泰徵이 호응하기로 하였다.¹³⁾

이상을 통해서 보면 무신란 초기 주도세력 중에서 바로 박필현을 위시한 서울의 준소계열이 반란의 핵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하여 처음 반란이 계획되고, 반란군사와 군자금 및 무기가 모집되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서울의 소론 준소계열이 바로 서울에서 외기내응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반란 본부 역할을 해야만 했다.

2. 丁未換局과 서울 주도세력의 약화

이렇게 반란을 도모하던 중에 1727년(영조 3) 7월 丁未換局으로 소론 완소 세력이 집권하였다. 이 사건은 반란을 준비하던 서울의 소론 준소 세력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집권 노론을 축출하겠다는 반란의 명분이 약해짐은 물론 반란에 대하여 재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당시 반란군의 정황은 任瑄의 공초¹⁴⁾에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11) 『영조실록』 권18, 4년 5월 8일 무오

12)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12일 기축 ; 이 사건으로 담양부사 심유현이 파직되었다(『영조실록』 권15, 4년 1월 27일 무인).

13)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6일 이인좌 공초 ; 『무신역옥추안』 권3, 4월 9일 한세홍 공초

14) 『무신역옥추안』 권5, 5월 1일 임선 진술

‘1727년 8, 9월 쯤에 박필현·한세홍 무리들이 이유익의 집에 모여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일이 실패하게 생겼다. 노론이 남아 있으면 일이 쉬울 터인데, 지금은 온건파 소론이 뜻밖에 다시 들어가 강경파 소론에게 희망이 있다. 인심이 조금 누그러지고, 영예로운 벼슬길에 올라 의기양양하게 되면, 미워했던 마음도 풀려 사라질 것이다. 이제 서울의 우리들은 손을 거두고 추이를 관망한 뒤에라야 재앙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 정미년 겨울 석달 동안은 그들 모두 두문불출하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즉, 정미환국으로 소론 완소가 정권을 잡자 서울의 소론 준수계 무신란 주모자들은 반란에 소극적이 되어, 1727년 겨울 석달 동안 모두 자취를 감추기까지 했던 것이다.

더구나 정미환국의 영향으로 서울 주도세력의 한 명인 정사효가 전주병사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727년 12월 28일 주모자인 박필현이 ‘역적 金一鏡을 추종했다’는 탄핵을 받아 泰仁縣監으로 좌천 되면서¹⁵⁾ 서울 세력은 더욱 위축된다. 이유익은 공초에서 ‘박필현이 지방으로 나갔기 때문에 안에서 호응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할 정도였다.¹⁶⁾ 즉, 정미환국과 서울 주도세력의 연이은 지방 좌천으로 반란본부가 와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무신란 주모자들과 달리 지방의 남인계열 반란군들은 계속 반란을 준비한다. 이러한 사실 역시 임선의 공초에 나타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28년 1월에 한세홍·양명하 무리가 이유익 무리에게 육박지르기를 “삼남 지방의 경우 明火賊 무리와 결탁한 듯하다. 지금은 비록 편안히 앉아 있더라도 재앙을 모면할 수 없다” 했습니다 … 또, 3월 3일에 한세홍·민관효 무리 30여 명이 이유익의 집에 모였는데, 한세홍이 “명화적 군사들은 곧 무뢰배들인데 이제 곧 태인현에 모일 것이다. 陽城 군사들 역시 모였으니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다” 하였고 … 그

15) 『承政院日記』 영조 3년 12월 28일 기유

16)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5일 이유익 결안

뒤 3월 7, 8일 쯤에 이유익이 “양성의 우리부대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제 곧 군사를 일으킨다고 한다. 서울의 친구들도 예전에 약속한 대로 어서 빨리 일을 추진하라 했다 … ”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즉, 지방의 남인의 경우 정미환국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반란을 준비했던 것이다. 지방의 남인들의 경우 정미환국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반란에 가담한 지방 남인의 경우 현직 관리가 드물 뿐만 아니라 반란에 가담한 이유도 지역별로 복잡·다양했기 때문에 정미환국이 이들의 반란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서울 무신란 주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방 준비세력이 일을 진척시켜 호남의 명화적 세력과 경기의 양성세력이 상당수의 군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반란을 멈추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컸다. 그리하여 서울의 반란 주모자들도 결국 다시 반란 준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박필현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서울 세력의 반란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반란군들은 李思晟의 관군동원에 더욱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 이사성은 변방의 병사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이사성은 모반이 일어나기 반년 전인 1727년 10월에 서울에 들어왔다가 영조에게 직접 군비 확충 및 정규군의 증설을 청하기도 했다.¹⁷⁾

그리하여 3월 3일 한세홍이 ‘명화적 군사가 이제 곧 태인현에 모일 것이다. 양성 군사들 역시 모였으니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내용을 어서 평안병사에게 알려 빨리 군사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 실제 3월 6일 한세홍이 직접 平安兵營으로 가서 이사성의 急飡를 宗용하였던 것이다.¹⁸⁾

또 3월 7, 8일 쯤 양성에서 ‘서울의 친구들도 예전에 약속한 대로

17) 『영조실록』 권13, 3년 10월 20일 임인

18)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5일 이사성 공초

어서 빨리 일을 추진하라' 하는 편지를 보내자 다시 평안병사에게 알려 하였고, 때마침 이사성의 군관 安樞가 한양에 오자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사성은 끝내 군대를 내지 않았다.¹⁹⁾

이사성 역시 평안도에서 부하군관 안추를 보내 서울에서 돌아가는 형편을 살폈는데, 정미환국 이후 여의치 못한 서울 형편을 파악하고 거병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²⁰⁾ 서울에서는 금군별장으로 중병을 장악하고 대궐 밖에 진을 치고 있던 남태징 역시 군대를 내지 못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갑작스런 정미환국으로 서울 주도세력의 반란 의지는 약화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박필현 역시 태인으로 좌천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평안병사와 서울병사 역시 거병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지방세력 까지 총괄 지휘해야 할 소론 준소계열 서울 지도부의 반란의지는 물론, 조직체가 와해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신란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

Ⅲ. 退溪學派의 영남 반란군 이탈

1. 안동 퇴계학과 남인의 포섭

이처럼 서울세력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지방 반란세력의 주도로 무신란은 강행된다. 영남지역의 경우 鄭希亮·이인좌의 동생 李能佐·정희량의 이종 金弘壽·曺聖佐 등이 지역 책임자가 되었다.

그 중에서 영남 반란군의 주모자였던 정희량(?~1728)은 혼맥이 닿아있던 이인좌를 통해 1727년에 반란에 가담하였다. 정희량은 경남 서북 지역의 안음 출신이고, 또 다른 영남군 주모자인 조성좌(1696~1728)는 합천 출신이다. 안음과 합천은 16세기 후반 '南冥學派'의 형

19)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7일 ; 『무신역옥추안』 권5, 5월 1일 임선 진술

20)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3일 안추 결안

성 기반이 되었던 지역이었으며, 정희량과 조성좌 역시 남명연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정희량은 남명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桐溪 鄭蘿의 현손이고, 조성좌는 陶村 曹應仁의 후손이었던 것이다.²¹⁾

특히 정희량의 경우 인조반정 후 경상우도에서 가장 현달했던 집안이었다. 그러나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 이후에는 그들과 세교를 유지하던 근기남인들이 폐고되었고, 이웃의 노론화한 거창신씨들이 동족마을을 형성하면서, 노론계 서원인 星川書院의 건립을 통하여 세력 증대를 꾀하였다. 따라서 정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안음 고현에서조차 종래 누려오던 세력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것이 정희량이 노론정권의 타도를 목적으로 기병하게 된 원인이었다.²²⁾

그러나 경상 우도에서는 정희량과 함께 반란에 동조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상좌도 사림을 반란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정희량의 이종인 김홍수는 상주출신으로 경상좌도 사림과 친분이 많았다. 이때 포섭된 안동사림으로는 안동권씨 가문의 權集²³⁾·權德秀·權萬과 柳夢瑞·柳夢禹·黃益再·金敏行(권구 매부) 등이 있다. 안동 외의 경상좌도 지역의 사림으로 黃壽聃·영덕의 申弼

21) 정온(1569~1641)은 초계정씨로 조식-정인홍-정온으로 이어지는 남명학파의 핵심 학맥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조응인(1556~1624) 역시 정인홍의 문인으로 남명학파의 증진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정희량과 조성좌에게 협력한 인물들은 대부분 남명연원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무신란의 결과로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박병권, 2005, 『남명학과 영남 강우 강안지역 사림의 동향』 『국학연구』 7, 한국학중앙연구원, 135쪽).

22) 이재철, 1986,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란』 『대구사학』 31

23) 이인좌의 공초에는 권구와 권덕수를 부자지간이라고 했지만 권구(1672~1749)는 안동 가일에 세거하는 안동권씨로, 花山 權柱(1457~1505)의 후손이다. 반면 권덕수는 안동 소야에 세거하는 안동 권씨로, 松巖 權好文(1532~1587)의 후손이다. 따라서 양자는 같은 권씨지만, 세계가 많이 다른 별개의 문중 사람이다. 그런데 이인좌가 양자를 부자관계라고 공초하고 있다. 이는 이인좌가 직접 안동 지역 사족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몰랐던 데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이육, 2011,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146쪽).

誨, 예천의 李潤師, 中山의 黃沈, 선산의 李燾 형제·吳鵬萬 등도 포섭된다.²⁴⁾

2. 퇴계학파의 안동 거사 포기

鄭希亮은 포섭한 경상 좌도 세력과 더불어 우도에서 친족·노비 및 모군으로 구성된 120명의 군사를 동원했다. 그리하여 3월 10일 영남 지역의 거병을 시작으로 무신란을 전개하기로 한다.²⁵⁾ 이인좌 공초에 보면 '1월에 제가 영남으로 내려가 김홍수와 정희량의 집에서 돌아오는 상황을 탐지했더니, 120명의 규모의 군사를 가지고 일을 저지르려 했으며, 날짜는 3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 알고 돌아와, 영남 지역이 호응해 군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점만 믿고 3월 15일에 거사 일으켰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²⁶⁾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경상도에서 안동 세력 등과 정희량의 군사 120명이 중심이 되어 3월 10일 반란이 시작되면, 이후 호서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 합류하고, 다른 지역도 반란을 일으켜 서울로 함께 진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인좌는 3월 7일 양성 구만리에서 군사를 모은 후 加川과 구만리에 분산 주둔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거병하기로 한 3월 10일까지 안동사람들은 소식이 없었다. 李能佐와 조세추가 3월 12일에 반란을 약속했던 안동의 권구의 집에 도착하여 반란에 합세하라고 촉구하지만, '형세를 보아가며 하자'라

24) 『무신역옥추안』 권2, 3월 26일 이인좌 공초 ; 『무신역옥추안』 권3, 4월 16일 조세추 공초

25) 조세추 공초에는 '영남 무신란의 시작을 3월 12일로 정희량과 약속했는데, 정희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인좌의 공초에서는 3월 10일 영남 거병을 시작으로 반란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의련 공초에도 3월 10일이 지나자 이능좌가 예천에 왔다가 안동 사람들에게 크게 분통을 터트리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3월 11일 이미 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능좌와 조세추가 움직인 정황을 보면 이인좌의 공초대로 3월 10일이 영남 반란군의 거병일로 판단된다.

26) 『무신역옥추안』 권2, 3월 26일 이인좌 공초

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3월 13일에는 유몽서의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이었다. 그러자 이능좌는 유몽서에게 ‘오직 우리들만 죽을 곳으로 들어가야 하겠는가’라며 꾸짖었다고 한다.²⁷⁾ 결국 이능좌 등은 안동 사림들의 반란 합세를 포기하고 14일에 안음의 정희량에게 간다. 이처럼 사전에 기병하기로 동의한 경상좌도 사림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궁지에 몰린 정희량 등은 계획을 바꾸어 안음에서 기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우도 사림의 분열과 노론화로 인하여 큰 호응을 얻기 어려웠다.²⁸⁾

그러나 3월 15일 호서 반란군이 청주성을 점령하자 거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3월 20일 鄭希亮과 李能佐는 우도인 안음 고현에서 초계정씨가 중심이 된 50여 호로 구성된 반란군으로 거병한다. 먼저 안음현감 오대옥에게 영조 즉위의 부당성과 거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격문을 투서하여 위협하자, 오대옥은 반란군이 오기 전에 도망가 버렸다. 정희량은 거창현감 申正模에게도 관문을 보낸다.²⁹⁾ 거창현감까지 도망가면서 안음과 거창의 향리·군졸은 모두 반란군에 종속되었다. 또한 반란군은 창고를 열어 미포를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각 절의 승려에게 형틀[器械]과 큰 북을 운송케 하여 세우는 등 반란군의 위세를 강조하였다. 이것을 보고 주변 각 읍에서 호응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³⁰⁾

정희량이 안음과 거창을 점령하자, 曹聖佐는 합천을 점령하였다. 즉, 영남 반란군은 3월 22일에 안음·거창·합천 등 3개 군현을 점령한

27) 『무신역옥추안』 권3, 4월 16일 조세추 공초

28) 당시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서원이었던 남계서원에 노론세력이 진출하여 그곳을 장악하였다. 또 숙종 20년 갑술환국 이후에는 안음에서 조차 노론화한 거창 신씨들이 동족부락을 형성하고 노론계 서원인 성천서원의 건립을 통하여 세력 증대를 꾀하였다(이재철, 1986, 위의 논문, 30쪽).

29) ‘國運이 불행하여 대란이 일어났으니, 종사의 안녕과 생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의하였다. 귀 읍의 병마와 군기를 보내주면 복상하여 국난에 거병하겠다’(『居昌縣監賊書謄本 上送逆賊李熊輔與居昌縣監書』, 『英宗時獄案』 편자미상, 규장각 소장).

30)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7일 정축

것이다. 그리고 정희량과 이능좌는 거창에 모여 군사를 나누어 이능좌는 知禮로 향하고, 정희량은 茂朱로 향하여 추풍령을 넘어 호서 반란군과 합세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善山府使 朴弼健이 金烏鑣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지령의 험한 곳을 먼저 점거하였고, 무주의 고갯길에도 호남의 군사가 점거하여 지켰다.³¹⁾

이렇게 현지 관군이 방어하자 정희량은 추풍령을 넘으려던 당초 계획에서 함양을 거쳐 남원을 지나 청주로 향하는 호남지방 우회로를 선택한다. 그리고 3월 28일 함양을 점령하고 兵器를 탈취한 후 운봉까지 진군한다.³²⁾ 그러나 운봉영장인 孫命大가 중심이 된 호남 관군과 창의군은 남원과 함양 가운데 있는 운봉 八良峙를 먼저 점령한 채 반란군의 남원 진입을 막는다.³³⁾ 3월 29일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팔랑치로 와 전투를 벌이던 반란군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대로 후퇴하고 말았다.

결국 3월 28, 29일 팔랑치 전투는 호남지방 관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영남 반란군은 호서 반란군과의 합류에 실패한다.³⁴⁾ 즉 오명항 군대가 내려가기도 전에 지방 관군이 영남 반란군을 진압한 것이다.

갑술환국 이후 정치적으로 억눌린 현실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두고 영남 남인은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노론에 협조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한 부류였다. 둘째는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일신을 온

31)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1일 신사

32)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7일 정해

33) 남원으로 영남 반란군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장우정·장우현·安燮·최여대·최재현·한동섭·황재·朴時采·한상지·최여옥·황익계·金萬光·朴尙采·太允周·韓八箕·丁燾·李時彬·陳光斗·金相德·襄曰大·吳道昌·최여삼·서한중 등 남원지역 사족들은 등이 남원의 수성을 도왔다(『南原誌』).

34) 운봉 팔랑치 전투는 관군과 의병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더구나 함양이 점령된 3월 28일 조정에서는 “역적의 괴수 이용보·정희량·박필현 등을 사로 잡아 머리를 베어 바치는 자가 良民이면 錄動하고 銀 천 냥을 상줄 것이고, 公賤·私賤이면 부모·처자를 모두 從良한 뒤에 爵賞의 반을 줄 것이다”는 격문을 揭示하여 의병활동을 독려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이어진 경상도감사 황준의 적극적인 토벌책과 경상우도 사림의 산발적인 창의로 오명항이 이끄는 중앙 관군이 남하하기도 전에 영남 반란군들은 궤멸되었다.

전히 보존하려한 부류들로서 이들은 자신이 속한 향촌사회에서의 지배자적 위치를 고수하면서 후일을 기약하는 온건한 부류였다. 셋째는 정국상황을 뒤집기 위해 정변을 꾀한 부류였다.³⁵⁾

바로 안동의 퇴계학과는 둘째 부류에 속하였던 것이다. 즉, 반란이라는 과격한 방법보다는 자신이 속한 향촌사회에서의 지배자적 위치를 고수하면서 후일을 기약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결국 권덕수·권만 등 퇴계학과 남인들은 이후 무신란 진압의 의병으로 나서며, 정희량 등 반란세력과의 선긋기에 나선다. 즉, 3월 29일 안동에서 권덕수·권만·金以鎬·김민행·金夢濂·裊行健·金啓鐸·金天煥·金達龍 등이 의병으로 창의를 한 것이다. 물론 영남에 파견된 按撫使 朴師洙가 권구의 이름이 이인좌 무리의 공초에 들었다면서 서울로 압송하였으나 영조의 특旨로 권구는 곧 석방되었다.

결국 무신란 전개에 있어서 처음으로 계획되었던 3월 10일 영남 반란군의 거병은 퇴계학과 남인의 거병포기로 좌절되었다. 그로 인하여 무신란은 시작부터 계획이 변경되면서 반란 진행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퇴계학과 남인의 거병포기로 영남 반란군의 세력은 크게 위축된 채 당초 계획보다 10일이나 늦은 3월 20일에 안음에서 겨우 거병한다. 그러나 관군에 막혀 북진하지 못한다. 이것이 무신란의 두 번째 실패원인이었다.

35) 우인수, 2005, 『훈·지수 정만양·규양 형제의 시대와 그들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8, 47쪽

IV. 호남 반란군과 邊山賊의 연대 실패

1. 부안 평교 집결 실패

당초 서울 반란세력의 주모자였던 박필현은 1727년 12월 좌천되어 泰仁縣監으로 부임하게 됨으로써 호남지역의 책임자가 되었다. 호남 지역의 거사준비는 박필현과 정세운의 협조로 본격화된다. 박필현은 부임 후 담양부사 심유현, 茂長에 유배되어 있던 박필몽,³⁶⁾ 정읍현감 睦重衡, 순천부사 朴泰三, 고산현감 朴亮漢(李有翼 妻父), 무장현감 金夢座, 부안현감 李文標 등과 호남기병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주로 현직 지방관이므로 소속된 관군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호남 기병을 추진한다.³⁷⁾

또 나주 나씨·부안 김씨 등 호남지역 사족과 접촉하여 반란에 가담시킨다. 원만주 진술에 의하면 3월 19일 부안 고부 平橋에서 김수종이 모은 군사 100여 인과 정세운·원만주가 1차 집결하여 출발 한 후, 21일 여산에서 나송대의 병사 90여 인과 합류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변이 들어갈 것 같다’는 이인좌의 급한 연락을 받고 주모자인 정세운이 12일 먼저 청주로 출발했다. 원만주도 성득하·고효점 등과 평교까지 함께 이동했다가 정세운의 뒤를 따라 청주로 이동했다. 부안 변산의 변산적과 내통한다고 알려졌던 정세운이 부안 평교 모임을 포기하고, 청주로 떠났던 것이다.

平橋 집결을 주도한 정세운 등이 청주로 떠났지만 그래도 일정을 당겨 3월 14일에 평교 집결은 이루어졌다.³⁸⁾ 뒤에 변산적 유민의 수

36) 박필몽(1668~1728)은 박필현의 사촌이자 처형이 장희빈, 처사촌이 정사효이다. 소론 준소의 주요인물로 1721년(경종 1) 金一鏡 등과 함께 신임옥사를 일으켰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뒤 노론의 탄핵을 받고 제주까지 유배된다. 이후 吏曹判書 吳命恒 등의 청에 의해 육지인 무장 유배지로 오게 되지만 결국 무신란에 가담한다(『英祖實錄』, 『勘亂錄』).

37) 『무신역옥추안』 권5, 4월 24일 李之時 공초

38) 이한초·고응량의 진술에는 3월 15일 평교에 집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무신

장으로 고변된 부안의 사족 진사 김수종과 또 다른 부안 사족 高應良·高効點·成得夏·成尙夏·진사 朴昌漢·진사 金昌洙·과총 金昌洙·姜渭徵 등 10여 인이 3월 14일 반란군의 진이 마련된 고부 평교에 간 것이다. 고부 평교에는 宋賀³⁹⁾ 등 이미 모인 사람 50명이 있었다, 이들은 합류하기로 약속한 태인현감 박필현의 군사와 淸州牧使 愼後三의 군대를 기다렸다.⁴⁰⁾ 그러나 이들이 지나도 박필현과 신후삼의 군대가 오지 않았고, 부안세력과 합류하기로 했던 나주나씨 세력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羅晩致⁴¹⁾를 통해서 반란에 가담하게 된 나주의 남인세력 羅崇大·羅斗冬은 난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인좌의 공초에 보면 ‘羅州에서 羅崇大가 家丁과 族屬을 이끌고 오고 … 이들과 함께 거사일을 기약’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나송대 가문은 무신란의 주요 세력이었다.⁴²⁾ 그러나 마지막에 나두동이 거병요청을 거부하면서 나주나씨들이 고부 평교 세력과 합류하지 못한 것이다.⁴³⁾ 또한 박필현 세력의

역옥추안』 권7, 6월 21일 고응량 결안).

- 39) 송하는 1712년(숙종 38) 호남 도적의 치세와 인심동요를 위무하고자 하는 호남 인재의 수용책이 거론될 때 별천대상에 올랐을 정도로 지방행정에 영향력을 지니던 인물이다(『備邊司謄錄』 권66, 숙종 39년, 11월 24일).
- 40) 『영조실록』 권18, 4년 6월 17일 병신 고응량 공초 ; 『무신역옥추안』 5월 10일 이한초 공초 ; 『무신역옥추안』 6월 20일 고효점 공초
- 41) 나만치는 무신란에 가담한 이호 사촌의 남편이기도한데, 일찍부터 박필현 등에 포섭되어 정세윤과 함께 호남지역에 궤서를 담당하는 등 핵심 인물로 활동하였다(『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8일, 권17, 4년 4월 7일·9일).
- 42) 나주나씨 가문은 나주에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세가인데, 이 가문 중 몇 사람이 무신란에 연루되게 된 것은 중앙 정계와의 진출이 막힌 양반층이면서 동시에 나주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던 나주나씨가 노론의 호남지역 진출로 인해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이 감소하자 세력 회복의 시도로 무신란에 가담했던 것이다(고수연, 2011, 『1728년 湖南 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 『역사와 담론』 60, 69쪽).
- 43) 『英祖戊申別謄錄』 2책 3월 29일 기사와 영조 16권, 4년 3월 29일 기묘조 기사에 실려 있는 南漢巡撫使 金東弼 상계 내 尹熙慶 招辭에 “나주의 나두동·나송대·나만치 세 사람은 養兵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 이번 군사를 낼 때에는 鄭世胤이 나두동에게 군사를 청하자, 나두동이 허락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 역시 군사를 일으킨다’ 고 하였습니다 … ”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

경우 3월 10일 갑자기 박필현이 태인현감에서 해면되어, 관군 동원 구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평교모임에는 소문이 무성했던 변산적도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평교에 모인 60여 명 중 일부는 해산하고 일부만이 청주로 赴陣하였다.⁴⁴⁾

박필현은 평교 세력과 합세하지 못하고 뒤늦게 독자적으로 거병한다. 즉 청주성을 점령한 반란군을 토벌할 의병을 모집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泰仁縣의 兵馬를 소집하여 3월 21일에 전주 南樓 밑에 진을 친다. 그러나 기다리던 박필몽과 무장현 군사는 오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함께 반란을 모의하던 전주병사 정사효⁴⁵⁾도 전주성의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 정사효가 본부로 하여금 병사를 내게 하였으나 전주 座首 吳震亨 등이 “조정의 명령없이 병사를 징발하는 것은 불가”라 하며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⁴⁶⁾ 전주성 入城이 실패로 끝난 후 박필현은 3월 26일 상주에서 잡혀 그 자리에서 斬首되었다.⁴⁷⁾

많은 지방관의 動兵 약조가 있어 호남 무신란의 전개는 쉬워 보였다. 그러나 현감의 군사권은 치안 유지권 정도이고 속오군의 징병은 영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반란군 모집이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라 감사 정사효 외에 무장현감 김몽좌도 무장의 군사를 모으는데 실패하였다.⁴⁸⁾ 담양부사 심유현 역시 1728년 1월 담양부 화재사건으로 해임되어 반란에 가담하지 못했다. 더구나 소문이 무성했던 호남 변산적은 평교모임과 태인거병에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를 보면 나두동이 정세운과 합류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나두동은 거병하지 못했다.

44) 『영조실록』 권18, 4년 5월 9일 기미

45) 당시 전라도관찰사 鄭思孝는 1727~1728년 호남 흉서사건에 가담한 인물로 반란군 세력이었던 것이다.

46)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1일 신사

47)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6일 병자

48) 『영조실록』 권19, 4년 8월 23일 신축

2. 邊山賊 관련 기록과 인물

호남지역은 반란 직전에 호서·영남에 비하여 난과 관련된 여러 징후들이 발생하여 반란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이른바 邊山賊, 또는 明火賊·綠林黨의 활동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⁴⁹⁾ 다음은 기록에 보이는 반란 직전 변산적의 기록이다.

〈표 3〉 무신란 직전 변산적 관련 기록

관련기록	내용
『영조실록』 3년 10월20일	부안과 변산에 도착때가 변성하여 대낮에 장막을 설치하고 대대적 노략질, 적도들이 변산의 큰절 점거함.
『영조실록』 3년 10월22일	근일 호남유민의 무리를 모아 도당을 이루어 하나는 변산에 있고, 하나는 월출산에 있는데 관군이 체포할 수 없을 정도로 기세가 큼.
『비변사등록』 영조3년 10월24일	부안의 도둑떼가 양민을 뽑아 그 무리에 보충함. 1726년부터 도둑무리가 변산의 여러 골짜기를 근거지로 삼음.
『영조실록』 3년 11월21일	여산 등지에서는 변산의 노비도적이 곧 거사한다고 밤에 산에 올라가 소리치는 일이 있음.

더구나 반란군 사이에서도 변산적 무리가 반란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任瑄의 공초를 보면 '1728년 1월에 한세홍과 양명하 무리가 "삼남 지방의 경우 아마도 명화적 무리와 결탁한 듯하다" 라고 하였다 ... 또, 3월 3일에 한세홍이 "명화적 군사가 이제 곧 태인현에 모일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변산적과 연관된 인물로 바로 박필현과 함께 호남 무신란을 담당하고 있던 鄭世胤⁵⁰⁾이 주목되고 있었다. 정세윤과 변산적의

49) 변산적은 변산을 근거지로 한 반란무리, 독립당은 明火賊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흉년이 들어 유민이 되어 폭력으로 정부에 저항했던 세력을 일컫는다. 숙종 말년부터 여러 기록에서 명화적이 등장하고 있다.

50) 정세윤의 신분은 양반으로 과거시험을 보지 않은 業儒였다(『무신역옥추안』 권 2, 3월 26일 이인좌 공초 ; 『무신역옥추안』 권2, 3월 27일 이배 진술).

연관성은 이인좌의 공초에 “변산적과 서로 내통하는 일은 정행민(정세윤)이 맡아서 했습니다 … 호남 지역의 경우는 정행민이 2초 규모의 변산적을 확보했는데, 나승대가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정행민이 변산적과 실제로 내통했기 때문에 저와 박필현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⁵¹⁾

안황은 ‘정세윤이 5, 6년 전 쯤에 역적모의 정황에 대해 말해주기를 “세상이 이처럼 어지러우니 명화적 군사[綠林兵]를 모아 아무 곳으로 가서 일을 일으키려 한다” 했습니다. 정세윤이 화적 무리를 거두어 모아 큰 패거리를 이룬지는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정세윤은 자신을 명화적 세력과 관련이 깊은 ‘鄭道畧’이라고 자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산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세윤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정세윤의 세거지가 호남 부안 변산이 아니라 경기도 양성이라는 점이다. 또 청주성 점령을 위하여 이인좌가 부르자 부안 평교집결에 불참하고, 변산적 없이 홀로 청주에 갔기 때문이다.

변산적과 관련되었다고 이야기 된 인물은 한명 더 있는데 바로 부안 변산의 사족 金守宗이다. 김수종은 박필현이 1727년 12월 호남기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주의 나주나씨 세력과 함께 포섭한 변산의 재지사족 세력 중 하나였다.

김수종은 박필현이 1727년 12월 태인현감 김수종과 함께 평교모임에 나아갔던 고응량에 공초에 “… 김수종은 가세가 넉넉하고 종이 많으며 집이 변산 아래에 있는데, 박필현이 전에 50여 인을 거느리고 가서 김수종의 집에 모였고, 朴弼夢이 茂長에서 재차 수십 인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가서 黔毛浦에 배를 대고 김수종의 집에 모여 모의하였습니다”⁵²⁾ 라고 진술하였다. 고응량의 진술로 인하여 김수종은 조정으로부터 변산 유민들의 수장으로 의심받게 된다.

김수종은 부안 우반동에 살던 부안 김씨로 조선시대 부안에서 가

51) 『무신역옥추안』 권2, 3월 26일 이인좌 공초

52) 『영조실록』 권18, 4년 6월 17일 병신 고응량 공초

장 현달한 성씨라고 할 수 있다.⁵³⁾ 또한 김수종의 집안은 대대로 용담현·임실현·부안현 등에 넓은 목장과 수백 명에 이르는 노비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다.⁵⁴⁾ 김수종 역시 1710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남들보다 앞서 축보개간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부를 확장해 간 거부였다. 무신란에 대하여 조사하던 司諫 徐宗玉도 김수종에 대하여 ‘집안이 부유하고 形勢가 있어 누차 齋郎에 擬望되었으니, 대개 豪強한 品官이다.’⁵⁵⁾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수종은 정세윤 사촌인 成得夏와 함께 1728년 2월 경부터 부안과 고부의 진사·유학 및 把摠·哨官 등 20여 인과 함께 고부 평교에서 몇 차례 회합을 갖고, 奴 50여 인을 마련하여 거사에 대비해 나갔다.⁵⁶⁾ 또 김수종은 자신의 노비 선공을 시켜 유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⁵⁷⁾ 그리고 3월 14일 부안 평교모임에 참여했다. 그러나 평교모임에 온 김수종은 변산적 없이 혼자였다.⁵⁸⁾

요컨대 호남지역의 변산적은 실체 여부를 떠나 그 소문만으로도 반란군과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변산적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되어 오던 정세윤은 반란 직전 청주로

53) 김수종의 아버지는 慶基殿參奉을 지낸 金璠이고, 조부는 남원·순천 현감 등을 지낸 金命說이며, 증조부는 임진왜란때 의병으로 활약하여 당상에 오른 金弘遠이다. 부안출신 『문과방목』 등재자 53인 중 17인이 부안 김씨로 성씨 중 1위이며, 부안출신 『사마방목』 등재자 113인 중 25인이 부안 김씨로 역시 1위이다.

54) 1726년(영조 2) 김수종이 소유했던 노비는 술거 29명, 외거 274명, 도망 58명으로 모두 361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전형택, 1989, 『조선후기 노비신분연구』, 일조각, 49쪽).

55) 『영조실록』 권21, 5년 1월 10일 을묘

56) 『무신역옥추안』 권7, 6월 21일 고을량 공초

57) 『무신역옥추안』 권8, 7월 10일 강위정 공초

58) 이후 김수종은 끝까지 난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결정적으로 증좌가 나오지 않게 되자, 참형을 피하고 유배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인좌의 공초에 난의 세력으로 변산 도적 200여 명을 분명히 지목했으며, 변산 바로 아래 살던 부안 최고의 토호인 김수종이 변산 도적에 대한 피해 등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김수종과 변산적과의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 도정황상 어색하다.

떠났고, 김수중 역시 끝내 변산적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변산적이 빠진 호남군은 지방관을 맡고 있던 반란군의 거병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박필현·정세윤이 중심이 된 호남 반란군은 호서 반란군과 같이 병영성을 점령하거나, 영남지역과 같이 몇 개의 군현을 점령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지는 못하고, 기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흩어졌다. 즉, 무신란의 또 다른 실패원인 중 하나는 바로 변산적 세력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호남 반란군과 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V. 호서 반란군의 안성·죽산 전투 패배

1. 반란 告變과 청주성 점령

1) 전주괘서 발견과 연이은 고변

1728년 3월 8일 전주에서 무신란과 관련된 수상한 편지가 발견되었다.⁵⁹⁾ 수상한 편지를 쓴 사람은 이세룡으로, 반란군의 반란준비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어서 3월 14일에 용인에 낙향해 있던 소론계 元老大臣 崔奎瑞가 상경해 반란군의 모반을 고발했다.⁶⁰⁾ 3월 15일 초저녁 위기의식을 느낀 영조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명령하여 궁성을 호위하게 했다. 연이어 3월 16일에는 김종만의 반란군 상황에 대한 보고로 호서 반란군의 청주성 점령 사실, 호남 반란군·영남 반란군의 존재, 반란 주모자들이 밝혀진다.

그리고 3월 17일 영의정 이광좌가 平安兵使 李思晟이 반란군의 초

59)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12일

60) 최규서는 같은 용인 어비곡에 거주하며 반란군의 모의에 참여했던 天文學 教授 安鎬와 그의 노비 莫實에게서 정보를 입수하였다(『무신역옥추안』 권1, 3월 14일 최규서 고변).

사에 나온 것을 영조에게 아뢰자 영조는 이사성을 붙잡아오고 문제가 생길시 즉시 머리를 베라고 강경하게 대처한다.⁶¹⁾ 그리고 서울로 압송된 이사성은 영조 앞에서 친국한다.⁶²⁾ 조정에서는 상당한 병권을 쥐고 있던 이사성을 먼저 체포해 난의 확산을 막은 것이다. 반란군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서울 반란군의 핵심 세력이 와해된 것이다.

3월 18일에는 소론 완소계 인물 병조판서 吳命恒(1673~1728)을 토벌 대장인 四路都巡撫使으로 삼고, 朴纘新을 中軍, 朴文秀를 從事官으로 삼아 군사 2,000명을 주고 남하시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했다. 소론이 시작한 반란을 소론이 진압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3월 18일 당일 조정에서는 국청을 설치하고, 도성 수비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날 愼光遠의 고변에 의해 추가로 閔觀孝·남태징·李樞·南泰績 등 한양에 있던 반란군 세력의 윤곽도 밝혀진다.⁶³⁾ 그리하여 3월 19일에 내응 저지를 위하여 금군별장 남태징·민관효를 곧바로 잡아와 참형시킨다.⁶⁴⁾

2) 청주성 점령과 군대모집

한편 이인좌 등이 모여 있던 경기와 호서세력은 비록 3월 10일 영남 반란군이 거병하지 않았으나, 양성에 군사가 모여있고, 반란에 대한 고변 등으로 인하여 단독적으로라도 청주성을 점령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다.⁶⁵⁾ 반란군에게 있어서 청주성 점령이 갖는 의미는 크다. 반란군은 충청도의 병영이 설치된 청주성을 점령해야만 청주성과 주변 군현에서 군대와 무기를 모집하여 전력보강과 전열정비를 할수

61)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7일 정묘

62) 이사성은 친국에서 ‘에당초 제가 그 패거리에 뛰어들 이유는 오로지 역적의 숫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었을 따름’ 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3)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8일 무진

64)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6일 병인

65)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6일 이인좌 공초

있고, 지리적으로도 영남·호남군과 만나 서울로 진격하는데 잇점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⁶⁶⁾

그리하여 3월 14일 밤 청주 읍내에서 5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주둔하였는데, 이날 밤 정세윤과 원만주 등이 합류한다.⁶⁷⁾ 이때 大元帥는 이인좌, 副元帥는 호남에서 급히 올라온 정세윤으로 정해졌다.⁶⁸⁾ 그리고 60여 명의 반란군이 중심이 되어 3월 15일 밤 行喪을 가장하고, 청주에 진입한다. 당일 23시~01시 사이 裨將 梁德溥 등이 문을 열어 주어 반란군은 서문을 통해 청주성(상당산성)까지 침입한다.⁶⁹⁾ 淸州兵使 李鳳祥이 나오자 이인좌가 바로 죽이고, 이배가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영장 南延年과 군관 洪霖도 죽인다.⁷⁰⁾ 兵馬虞侯 朴宗元和 청주병영 別將 崔厚廉·閔得洙, 군관 李弘圭·李之時 등은 투항하여 이후 반란군으로 활동한다.⁷¹⁾

반란군은 청주성 점령 이후 적극적으로 군대모집에 힘을 썼다.⁷²⁾

66) 고수연, 2008,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사학과박사학위논문, 27~28쪽

67) 『무신역옥추안』 권7, 5월 24일 원만주 공초

68) 청주성을 점령한 주요 반란군은 양성 거주인물로 鄭世胤·崔擎宇·柳伋·權瑞麟·權瑞龍·李呬·鄭重復·陸胄敬·崔龍瑞·崔甲·高善昌·柳儉·尹台徵·薛東麟·朴世彩·金日石·崔鳳瑞·陸涵敬·李順望·李義衡·李貞衡·李樛·李穰·崔龍瑞·張鎭·張欽·張鏞, 진위 거주인물로 李培·權瑞鳳·金廷賢·蘇晟·蘇晃·崔以行·洪傑·崔夢柱, 안성 거주인물로 李光績·鄭季胤·尹熙慶·元萬周, 청주 거주인물로 李麟佐·申天永·李之慶, 여주 거주인물로 任瑞虎·任瑞鳳·任緒麟, 죽산 거주인물로 尹殷燮·朴峻, 과천 거주인물로 愼光遠, 용인 거주인물로 金宗允, 한양 거주인물로 趙東奎, 양지 거주인물로 尹就徵, 거주지 미상인물로 郭章·鄭重益·朴萬兼·李希天·河鴻漸 등 56명에 이른다(『영조실록』, 『무신역옥추안』 참조 작성).

69)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5일 을축;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6일 병자 이인좌 공초; 『영조무신별등록』 권4, 6월 21일 충청병사 趙淡 장계

70) 『무신역옥추안』 권1, 3월 28일 목함경 자백

71) 靈休, 『上黨山城 古今事蹟記』, 1744년; 『영조무신별등록』 권4, 6월 21일 충청병사 趙淡 장계

72) ‘…역적 무리의 군관과 전령이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쌀과 돈 및 무명을 써서 인심을 수습했으며, 매일 ‘전국 팔도와 함께 약속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어느 도의 어느 군사들이 어느 날에 당도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 여러 명이 역적 편에 뛰어들었고, 군졸의 경우 따라간 자들도 있었다 …’(『무신역옥

그 결과 청주의 양반·군관·향리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반란에 가담하였다.⁷³⁾ 반란군은 청주뿐 아니라 주변지역에서도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3월 16일 반란군이 청주 인근지역에 檄文을 돌리자⁷⁴⁾ 이 중 관문을 받은 목천·청안·진천·회인 등 4개 군현의 현감들은 도망갔다.⁷⁵⁾ 반란군은 현감이 도망간 지역의 관아 병졸을 인솔하여 반란군으로 삼았다.⁷⁶⁾

이렇게 군사를 모집한 반란군은 청주 사족 申天永과 이인좌의 셋째 동생 李麒佐 등을 청주성에 남아 주둔하게 하고, 3월 21일 이인좌·권서봉·박종원 등은 청주지역에서 차출한 병졸을 인솔하여 등이 진천으로 간다. 그리고 22일 청주 주변지역에서 모집한 군사까지 진천에서 합류시켜 반란군의 규모는 3, 4초(300~400명)에 이르렀다. 22일 진천에서 주변군현을 돌며 부족한 군량미도 더 확보한다.⁷⁷⁾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인 3월 23일 이인좌는 군대를 셋으로

추안』 권3, 4월 7일 李夏宅 진술)

- 73) 청주성 점령 후 자발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청주 인물은 幼學으로 姜穉·朴明喜·李寅植·安錫文·趙星彬·金思顏·金振秋·황사신·金斗萬·柳松이 있다. 軍官으로는 李之時·崔厚廉·閔得洙·柳信民·李幸昌·朴宗元·李弘規 등이 가담하였고, 東伍 朴莫龍과 庶孽 남익신 등도 가담한다. 그 외 金世炳·羅榮·박필만도 가담하였다(『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7일 정축 이배 공초; 『영조실록』 권19, 4년 10월 3일 경진; 『英祖戊申別騰錄』 권3, 5월 10일 호서안무사 金在魯·충주영장 신만 장계; 『영조무신별등록』 권4, 6월 22일 호서안무사겸충주목사 김재로 장계; 『영조무신별등록』 권2, 3월 27일).
- 74) 관문의 내용은 “3월 17일에 편오·속오·신선·아병·마병·금위군·어영군·재가군 관·관군관을 모아, 3월 18일 아침에 직접 거느리고 와서 넘기도록 하라. 만일 한사람이라도 인원점검에서 빠지면 군율에 따라 목 베어 죽일 것이다”였다(『무신역옥추안』 권2, 4월 5일 이정렬 공초).
- 75)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18일·21일;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9일·6일; 『무신역옥추안』 권2, 4월 5일
- 76)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6일; 특히 목천과 진천을 점령 하였을 때 남인·소론 사족이 무신란에 많이 가담하였다. 목천 지역은 남인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고, 무신란 이전 진천지역 역시 소론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 가담 인물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수연, 2008,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사학과박사학위논문, 41~49쪽 참조).
- 77) 『토역일기』, 영조 4년 3월 22일

나누어 진군한다. 박종원이 이끄는 부대는 안성으로, 정세윤이 이끄는 부대는 죽산으로, 그리고 안후기는 주력 부대와 분리하여 따로 목천으로 진격하였다.

2. 안성·죽산 전투

1) 안성 가지곶 전투

한편, 오명항의 관군은 18일 남하하여 당일 진위에 이른다. 그런데 청주성에 있던 반란군은 서울을 출발한 오명항의 관군이 振威縣에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3월 20일에 이배가 오명항을 암살하려고 50여 명을 이끌고 진위 군진으로 난입까지 한 것이다.⁷⁸⁾

그러나 이배 무리는 모두 관군에게 붙들리고, 이배만이 가까스로 탈출한다. 관군은 그들을 통해서 반란군의 한 부대는 죽산으로, 다른 한 부대는 안성으로 향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아냈다. 그리고 관군은 직산으로 간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주력부대를 몰래 안성으로 옮겨 반란군과의 전투를 준비한다.⁷⁹⁾ 우선 안성군수 민제장과 진위현령 趙東彬의 군사로 하여금 안성을 수호하게 했다.

그것도 모르는 채 이인좌의 호서 반란군은 3월 22일 진천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 죽산·안성으로 진군한다. 반란군은 죽산을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문서를 발송했다. 그러자 죽산부사 崔必蕃은 진위의 도순무사 오명항의 군중으로 도망했다. 죽산부사가 도망가자 반란군은 가짜 죽산부사로 崔夢柱를 임명한다.⁸⁰⁾ 반란군이 죽산에 이르자 일

78) 당시 이배의 나이 47세로, 어영청 장관 출신이다. 이배는 빼어난 힘을 가지고 반란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청주성 점령 후 충청병사 살해를 주도했으며, 또한 오명항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암살계획이 발각되어 체포될 때도 결박을 당한 뒤에도 도망갔다. 죽산전투 패배 후 수원 해촌에서 잡힌다(『무신역옥추안』 권2, 3월 27일 이배 공초 ;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0일 경오 ;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6일 병자).

79)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80)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1일 신미

부 죽산 사람들은 반란군에 가담하기도 한다.⁸¹⁾

그러나 오명항은 도망쳐 온 죽산부사 최필번에게 진위군민을 모아 대비시키라고 명하였다. 이어 繼援將 朴同樞가 개성부의 馬兵 2초를 거느리고 진위로 와 오명항 군대의 후원이 되면서 관군의 전열은 정비되었다.⁸²⁾

이인좌의 호서 반란군은 3월 22일 저녁에 관군이 있는 안성에 이른다. 관군은 먼저 소금장수 차림을 한 반란군의 첩자 崔涉을 붙잡아 반란군의 정세를 알아낸다. 잠시 후, 반란군이 진을 침범했다는 관군의 보고가 전달된다. 이에, 오명항은 기다렸다가 반란군이 가까이 오면 포를 쏘도록 명령했다.⁸³⁾ 이때 반란군은 청주병영과 목천·청안 등의 마병이 포함되어 있어,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오명항의 중앙 관군을 단지 안성 소속의 관군으로 착각하고, 포와 화살을 쏘며 접근했다. 그러다 중앙 관군이 쏜 神機箭을 보고서야 비로소 京營의 관군이 온 줄 알았다. 이후 놀란 일부 반란군이 흩어지자 이인좌와 박종원 등은 병력을 거느리고 일단 물러났다. 이렇게 3월 22일 저녁의 전투는 탐색전으로 막을 내린다.

3월 23일 아침, 관군은 민제장이 잡은 또 다른 반란군 첩자를 문초해 반란군이 산중인 가지곡 대촌(현재 안성시 금광면 오산리)에 물러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지곡은 중앙 관군의 진에서 겨우 5리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그 지역은 산줄기가 3면을 둘러 싸고 있었고, 가지곡의 앞쪽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명항은 즉시 중군 박찬

81) 『무신역옥추안』 권2, 3월 27일 李瑠 공초 ; ‘반란군이 죽산에 이르자 죽산사람 윤취상·서문석·박준 등이 반란군편에 들었고, 죽산의 미륵촌에 사는 송가의 일문 또한 술을 빚고 곡식을 쌓아놓고 반란군을 영접할 계책을 세웠다’고 한다. (『영조실록』 권22, 5년 4월 30일 갑진) ; ‘1730년 약방제조 윤순이 임금께 아뢰기를 “무신년에 신이 監護使로 내려갈 때에 龍仁·廣州·陽智·竹山·淸州에 서는 술을 많이 빚어 놓고 역적들의 군사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영조실록』 권25, 6년 4월 16일 계축).

82)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2일 임신

83)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신에게 보군 3초와 마군 1초를 주어 반란군의 진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민제만에게는 안성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산등성이로 가 반란군의 도주로를 막게 했다.

당시, 관군의 움직임을 눈치 챈 반란군은 급히 산으로 올라가 진을 쳤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관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이어, 관군 趙泰先이 박종원에게 총을 쏘아 맞혔다. 이때, 이만빈이 박종원과 그의 군관 몇 사람을 베자 반란군의 사기는 크게 꺾였다. 설상가상, 반란군의 弓砲는 밤비에 젖는 바람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반란군은 산꼭대기로 도망쳐 올라가 산등성을 따라 남쪽으로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민제만의 군사가 있었고, 이것을 본 반란군은 다시 서쪽으로 도망쳤다.

안성 가지곡 대촌 전투는 이날 오후 3~4시 사이에 관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⁸⁴⁾ 관군은 반란군 권서봉·박종원·목함경·이지경 등 100여 명을 잡아 참수하였다. 다만, 이인좌는 도망쳐 죽산의 정세윤 진영에 합류했다.

2) 죽산 노루목 전투

다음날인 3월 24일 오명항은 먼저, 안성의 군대를 죽산으로 보내 수색하게 하자 죽산 노루목(현재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에 있던 반란군의 진영을 찾아 보고해 왔다. 오명항이 그 지형을 보니 반란군 진영 앞에 獐項嶺이라는 험준한 고개가 있었다. 그는 반란군이 먼저 점거할 것을 염려해 馬步軍을 재촉해 일제히 고개로 오르게 했다. 당시, 반란군의 마군 몇 초는 고개 밑 수십 보 되는 곳에 있었는데 그 大隊는 들판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관군을 발견한 정세윤의 호서 반란군이 포를 쏘았으나, 곧, 관군이 가파른 언덕으로 내려가 반란군 진영으로 들이치자 반란군은 궤멸되었다. 반란군의 부원수 정세윤도 李萬彬·李禹錫에게 쫓기어

84)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3일 계유

포박되었다. 군중들은 정세윤의 지체를 가른 후 참수했다. 이 죽산 전투에서는 박찬신이 선봉에 섰고, 이만빈·이수량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⁸⁵⁾

그런데 당시 오명항은 “사로잡은 자는 상을 주겠으나 참수해 바친 자는 論賞하지 않겠다”는 명을 내렸다. 이는 평민이 뒤섞여 살육될 것을 염려한 조치였다.⁸⁶⁾ 그리고 잡혀온 사람중 사나운 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곤장을 쳐서 방면하면서 朝家의 德意를 선포했다.

한편 반란군이 주둔했던 곳에는 버려진 軍器와 마필·미포·의복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민제만을 죽산의 임시 수령에 임명해 군기를 수습하게 했다. 이때, 군기 가운데 청주의 字標가 표시되어 있던 30바리는 청주 병영으로 되돌려 보내고, 7~8바리는 죽산에 남겨 두었다. 그리고 이외의 노획물 전부는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반란군의 우두머리 이인좌를 붙잡는 일이었다. 오명항은 급히 장교들을 사방으로 보내 이인좌를 찾게 했다. 이인좌는 3월 23일 안성에서 반란군이 패배하자 밤에 산골짜기로 도망쳐 죽산에 이르렀으나, 죽산의 반란군 또한 궤멸되자 도주해 산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3월 26일에 백성 申吉萬 등과 승려들에게 붙잡혀 관군에 넘겨졌다.

3월 26일 이인좌·권서봉·목함경 등은 檻車에 실려 서울에 이송되었다. 이인좌는 그날 親鞫에서 공술하고, 다음날인 3월 27일 대역죄로 능지처참되었다. 3월 29일 영조는, 이인좌·정세윤·이배 등의 잘라낸 목을 소금에 절여 머리마다 이름자를 쓴 패를 매달아 호남과 영남에 돌려보이도록 했다.

3월 22일~24일 안성과 죽산 전투에서 승리한 중앙 관군은 청주로 진군했다. 그러나 중앙 관군이 청주에 도착했을 때는 청주성을 지키

85) 『영조실록』 권16, 4년 3월 24일 기사

86) 실제로 관군 別軍職 朴世粹는 사로잡은 13명의 양반들을 반란군으로 오인해 사살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던 반란군 역시 청주 관군과 의병에 의해 토벌된 뒤였다.⁸⁷⁾

이어 4월 1일에는 조성좌가 점령했던 합천, 4월 3일에는 정희량이 점령했던 안음의 반란군이 평정되었다. 정희량도 4월 3일 거창에서 관군에 체포되어 현지에서 참수되었다.⁸⁸⁾ 영남 반란군 역시 오명항 군대가 내려가기도 전에 진압된 것이다.

조정에서는 무신란의 10역적을 김일경·목호룡·이인좌·이용보·박필현·이사성·정희량·박필몽·남태징·민관효로 결정하고, 10역적 중 살아있는 인물은 친국 후 모두 능지처사하였다. 4월 19일, 마침내 관군이 개선하자 영조는 남대문 밖으로 나와 반란군의 수급을 받고 관군을 공신에 책봉한다.

3월 15일 밤 호서 반란군은 청주성을 점령했으나 이후 3월 22일까지 무려 7일을 청주에 머물러 청주성과 주변지역에서 군사와 무기 모집을 했다. 점령 이전 이미 정부에 고변이 들어갈 것을 안 상태에서 너무 오래 지체했던 것이다. 그러나 호서 반란군이 7일 동안 청주에 머물렀던 것은 영남과 호남 반란군의 연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다린 것이었다.

영남 반란군은 3월 20일 안음에서 거병하여 거창과 3월 22일 합천을 점령하고 호서 반란군과 합세하기 위해 북진했으나, 선산과 무주에서 관군에 막혀 추풍령을 넘지 못했다. 호남 반란군 역시 3월 21일 태인에서 거병하여 3월 22일 전주성 점령을 시도하나 실패한다. 즉 영남과 호남 반란군은 결국 호서 반란군과 합세하지 못하였고, 영남과 호남 반란군을 기다리던 호서 반란군은 청주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했던 것이다.

반면 조정에서는 3월 15일 청주성 점령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반

87) 청주지역 의병들은 노론계 사족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무신란 직전 반노론계 사족과 마찰이 있었던 가문이 중심이 되었다(고수연, 2008,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사학과박사학위논문, 67쪽 참조).

88) 정희량은 체포된 후에도 “영조는 숙종 임금의 아들이 아니며,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거의는 정당했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했다. 그러자 李述源의 아들이 정희량을 현지에서 죽인다(『영조실록』 권17, 4년 4월 2일 임오 참조).

란계획을 일부 알고 있었고, 반란이 보고되자 빠르게 관군을 조직한다. 특히 3월 15일에서 3월 22일까지 7일 동안 오명항의 중앙 관군은 전열을 튼튼하게 정비하면서 안성·죽산 전투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더는 지체할 수 없었던 호서 반란군은 3월 22일에 단독적으로 안성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던 중앙 관군은 반란군의 핵심전력인 호서 반란군을 맞아 안성·죽산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승리 이후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여 관군에게 힘을 실어 줬다. 즉, 호서 반란군의 안성·죽산 전투의 패배가 결정적인 무신란의 실패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조선 英祖代 戊申亂은 영조를 퇴위시키고 老論세력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소론 준소계열이 반란을 시작하였고, 남인이 중심이 되어 실제 擧兵하였으며, 소론 완소계열이 진압한 정치적 兵亂이었다. 이 글에서는 1728년 3월 15일 청주성 점령부터 4월 19일 오명항의 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서울로 개선하기까지 약 1달간에 걸쳐 일어났던 무신란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신란을 처음 계획했던 서울의 소론 준소 인물들은 소론 완소가 정권을 잡은 1727년 丁未換局으로 반란에 대한 기대와 참여가 약해진다. 특히 평안병사 李思晟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평안병영 군사의 거병을 포기하면서, 반란의 시작부터 계획이 변경되기 시작한다.

둘째, 3월 15일 청주성 거병 이전, 먼저 3월 10일에 영남지역 거병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반란을 약속한 안동 退溪學派들의 반란군이 탈로 실패했다.

셋째, 호남지역의 邊山賊은 그 소문만으로도 반란군과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변산적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되어 오던 鄭世胤은 반란 직전 호남에서 청주로 떠났고, 金守宗 역시 끝내 변산적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변산적과의 연대에 실패한 호남 반란군은 3월 14일 평교모임과 박필현의 3월 21일 전주성 점령 모두 실패한다.

넷째, 무신란이 전개되면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는 호서 반란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주와 주변지역에서 추가로 병력을 얻은 호서 반란군은 안성 죽산전투에 참여한 반란군의 숫자가 300~4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반란군의 오명향 암살시도를 막아내고, 반란군의 첩자를 역이용한 관군의 기지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더구나 중앙 관군의 군사력과 무기는 반란군보다 월등했다.

다섯째, 각 지역 반란군의 합류 실패를 들 수 있다. 영남 반란군은 퇴계학파의 반란군 이탈로 당초 계획보다 10일이나 늦은 3월 20일 안음에서 거병하였다. 그리하여 안음·거창·합천·함양 등의 군현을 점령하지만 선산·무주에서 막히고, 다시 운봉에서 관군에게 진압당해 북진 하지 못했다. 호남 반란군 역시 3월 14일 부안 평교모임이 실패로 돌아가고 뒤늦게 박필현이 3월 21일 전주성 점령을 시도하지만 반란에 가담하기로 약속한 전주목사 정사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입성을 실패하였다. 따라서 영남 반란군과 호남 반란군은 3월 15일 청주성 점령은 물론, 3월 22일~24일까지 안성·죽산전투 합류에도 실패한다.

호서 반란군의 입장에서도 3월 15일 청주성 점령 후 3월 22일 안성 전투까지 7일동안 너무 오래 지체하여 관군에게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내주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3월 22일~24일 안성·죽산전투는 패배했고, 이를 기점으로 무신란은 빠르게 진압되기 시작하여 4월 19일 일단락된다.

결국 영조는 무신란 이듬해인 1729년 己酉處分을 내려 봉당정치외 문제점을 제시하며 탕평을 반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계

에서 소론과 남인의 정치적 입지는 극도로 축소되었고, 반대로 노론의 정치적 명분은 분명해졌다. 지방사회 역시 당파에 따른 在地士族의 分岐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무신란을 기점으로 중앙 정계와 지방 향촌사회가 정치·사회적으로 노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제어 : 戊申亂, 英祖, 少論 峻少, 南人, 少論 緩少, 丁未換局, 退溪學派, 邊山賊, 안성·죽산전투

투고일 : 2015. 8. 12. 심사완료일: 2015. 9. 13. 게재확정일: 2015. 9. 14.

참고문헌

1. 자료

『英祖實錄』 『戊申逆獄推案』 『英祖戊申別曆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英宗時獄案』 『南原誌』 『勸亂錄』 『討逆日記』 『上黨山城古今事蹟記』

2. 저서

고수연, 2008,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사학과박사학위논문
전형택, 1989, 『조선후기 노비신분연구』, 일조각

3. 논문

고수연, 2011, 「1728년 湖南 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 『역사와 담론』 60
고수연, 2013,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 19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동향」 『역사와 담론』 65
박병련, 2005, 「남명학과 영남 강우 강안지역 사림의 동향」 『국학연구』 7
변주승·문경득, 2013, 「18세기 전라도 지역 戊申亂의 전개과정 : 『戊申逆獄推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9
오갑균, 1977, 「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21
우인수, 2005, 「훈·지수 정만양·규양 형제의 시대와 그들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8
유한선, 2011, 「영조 4년 무신란과 전라도 의병 : 『湖南節義錄』 분석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9
이상옥, 1969, 「영조 무신란의 연구」 『우석사학』 2
이우성, 1959, 「地方土豪 對 中央權力層의 鬪爭」 『경상남도지』 상
이 옥, 2011,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이원균, 1971,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영남의 정희량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2
이재철, 1986,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
이종범, 1984,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연세대사학과석사학위논문
허태용, 2014, 「1728년 戊申亂의 진압과 『戡亂錄』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of Failure of
The Mooshin Revolt(戊申亂)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n Joseon

Ko, Soo-Yeon*

The Mooshin Revolt(戊申亂) was a political disturbance initiated by the Soron Junso(少論 峻少) line to abdicate King Yeongjo(英祖) and drive the Noron(老論) members out of the political circles and suppressed by the Soron Wanso(少論 緩少) line with Namin(南人) playing a pivotal role and raising an army in the process.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s of failure of the Revolt, which took a month or so from the occupation of Cheongju Fortress(淸州城) on March 15, 1728 to the suppression of rebel forces and triumphant return to Seoul by the royal forces led by Oh Myeong-hang(吳命恒) on April 19.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igures of Soron Junso in Seoul, who made the first plan for the Revolt, clearly decreased in their expectations for and participation in the Revolt because of Jeongmihwanguk(丁未換局) in 1727, through which the figures of Soron Wanso seized power.

Second, there was a plan to raise an army in the Yeongnam region

* A Professor at the Faculty of Liberal Arts Convergence at Youngdong University

on March 10 before March 15 when they raised an army at Cheongju Fortress. The plan, however, fell flat as the Toigye School (退溪學派) of Andong(安東), who promised their participation in the Revolt, broke away.

Third, Byeonsanjeok of Honam region(湖南 邊山賊) had huge influences on the rebel forces and people with his rumors. However, Jeong Se-yun(鄭世胤), who was rumored to have relations with him, left Honam for Cheongju right before the Revolt, and Kim Su-jong(金守宗) never appeared in public with him. In the end, the Honam Forces missing the element of Byeonsanjeok failed in the Pyeonggyo Gathering(판교 모임) on March 14 and the attempt to take over Jeonju Fortress(전주성) led by Park Pil-hyeon(朴弼顯) on March 21.

Fourth, the most powerful forc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volt was the Hoseo Rebel Forces(호서 반란군), but they failed to match the wits of royal forces that prevented the attempt to assassinate Oh Myeong-hang and used the spies of rebel forces to their advantage. Furthermore, Shingijeon(神機箭) of royal forces was enormously powerful that was not even comparable to the weapons of rebel forces.

Eventually, the Hoseo Rebel Forces was defeated in Anseong and Juksan Battle(안성·죽산전투)

Key words : Mooshin Revolt(戊申亂), King Yeongjo(英祖), Soron Junso(少論 峻少), Namin(南人), Soron Wanso(少論 緩少), Jeongmihwanguk(丁未換局), Toigye School(退溪學派), Byeonsanjeok(邊山賊), Anseong and Juksan Battle(안성·죽산전투)